

# “잠자던 주식·배당금 79억 원, 주인 품으로” 예탁원,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및 전자증권 전환 캠페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및 전자증권 전환 캠페인’을 통해 미수령 주식 667만 주(평가액 46억 원), 전자증권 전환 주식 48만 주(평가액 33억 원) 등 79억 원 규모를 주주에게 반환했다.

미수령 주식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실물 증권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했으나, 주소 변경과 같은 사유로 통지문을 받지 못해 명의개서 대행 회사가 보관하는 주식이다.

캠페인은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고 전자증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했다.

명의개서 대행 기관인 예탁원과 KB국민은행·하나은행은 주주에게 휴면 재산의 존재 사실을 알리고자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개별 연락을 시도하고, 실거주지를 파악해 캠페인 안내문을 통지했다.

미수령 주식을 찾고 싶은 주주는 캠페인 기간과 상관없이 예탁원 창구로 내방하면 된다.

예탁원은 향후 비대면 소액주식 찾기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예탁원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며 휴면 금융 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활동에 힘쓰고 있다. ▼



1 전자증권 전환 및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2 한국예탁결제원 서울